

마지막을 사는 법

암송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3)

◎ 본문말씀: 예레미야 26:16-24

16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17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8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20또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21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22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23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24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 묵상하기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과거 히스기야 왕은 예언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18-19절).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야김 왕은 회개는커녕 거슬리는 말을 한 예언자 우리야를 집요하게 찾아내 죽입니다(23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도 이처럼 엇갈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슬리고 불편하다고 거부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혹은 사람들을 통해 나의 마음과 습관과 삶을 돌아보게 하실 때 겸손히 모든 것을 멈추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프더라도 “아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 적용하기

같은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의 엇갈린 반응을 묵상하며 나의 태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 뼈를 때리듯이 나의 악하고 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말씀을 외면하거나 지적한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생각하기

■ 나 또한 ‘여호야김 왕’처럼 거슬리고 불편한 말씀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요? 불편했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 미가의 예언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히스기야 왕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